

시대정신을 위하여

이남국

21세기가 시작되는 전야제에 온 국민과 온 세계가 함께 나누었던 희망과 기대 그리고 새로운 세기의 시작을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열망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축제처럼 카운트다운을 함께 외쳤던 때로부터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20세기 후반의 짧은 기간에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근대적 과제들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 이것은 세계사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정도인 것이다.

1인당 GNP가 80달러에서 2만달러로 증가하고, 자유로운 선거에 의해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며, G20의 의장국으로 될 만큼 국력도 커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지금 사람들은 절대억압이나 절대빈곤의 중압 속에 있던 과거에 비해 '인간의 진실한 자유와 행복'이라는 테마 앞에 더 절실하게 서 있는 것이다.

이제 과거의 사고나 행동양식으로는 풀기 어려운 새로운 과제들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

좌우, 동서, 남북, 국경, 이익, 그리고 인간을 넘어서서 바라보지 않으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21세기인 것이다.

4대강, 세종시, 노동법 개정 등 국내 문제들도 해결해야 할 과제지만,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둘러싼 우리의 고민이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이 다급해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의 지지부진, 세계도처에서 발생하는 난민문제 등도 이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풀지 않으면 안 될 과제로 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요즈음 논어의 한 구절이 우리의 지금의 현실과 오버랩되는 느낌을 받고 있다.

논어 13편 자로에 나오는 문장이다.

<자로가 여쭙었다. "위나라 임금이 선생님 오시기를 기다려서 정치를 한다면 선생님께선 장차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반드시 명(名)을 바르게 할 것이다."

자로가 말씀드렸다. "이러합니다. 선생님께서 현실에서 멀으신 것은. 어찌 명(名)을 먼저 바로잡는다 하십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由)야, 너는 참 비속하구나. 군자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일에는 입을 다물고 있는 법이다. 명이 바로 서지 않으면 말이 시행되지 않고, 말이 시행되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약이 흥하지 못하고, 예약이 흥하지 못하면 형벌이 도리에 맞지 아니하고, 형벌이 도리에 맞지 않으면 백성들이 손발 둘 곳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군자가 명을 바로 하면 반드시 말이 서고, 말이 서면 반드시 행해지게 될 것이니, 군자가 말함에 있어서는 조금도 구차함이 없는 것이다."

(子路曰 衛君 待子而爲政 子將奚先 子曰 必也正名乎 子路曰 有是哉 子之迂也 奚其正 子曰 野哉 由也 君子於其所不知 蓋闕如也 名不正 則言不順 言不順 則事不成 事不成 則禮樂不興 禮樂不興 則刑罰不中 刑罰不中 則民無所措手足 故 君子名之 必可言也 言之 必可行也 君子於其言 無所苟而已矣) >

자료가 공자에게 정치를 맡게 된다면 무엇부터 하겠는가 하는 질문에 공자는 '명을 바로 세우는 일(正名)'이라고 답한다. 이에 대해 자료가 '그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생각'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현실에는 풀어야 할 난제들이 너무 많은데 한가하게 명(名)을 세우는 일이나 하고 있을 수 있느냐하는 의미인 것 같다. 이에 대해 공자는 단호한 어조로 자료를 비속(野)하다고 나무란다.

흔히 '정명'(正名)을 '명분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 번역을 하고, 명분이라는 말이 실질보다는 형식에 억매이거나 자기합리화 또는 반동적인 세력의 권력 유지와 결합되어왔던 과거의 기억들이 연상되다보니 이 말이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그다지 좋은 이미지로 다가오지 않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그런 이미지를 떠나 그 말의 참뜻을 찾아본다면 현대야말로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 온다. 풀어야 할 난제들이 너무 많을수록, 또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법이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보일수록 먼저 할 일은 '이 명(名)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명'을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시대정신의 구현을 위한 종합철학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진정한 진보를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사회제도, 다툼이 필요 없을 정도의 물질적 생산력, 서로 양보하고 싶어지는 정도의 정신적 성숙 등이 조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의 좌우, 보수와 진보, 인간중심, 이익 중심 등의 시각으로는 이에 대한 종합적 시각이 불가능하다. 그러다보니 종래의 관점에서는 봉합하는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좌파 신자유주의 같은 합성어)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양 쪽에서 비난받을 뿐 아니라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마저 자기주장의 정합성(整合性)을 찾기 어렵다. 공자의 말씀대로 하면 언(言)이 불순(不順)하게 되는 것이다. 언(言)이 불순(不順)하면 실행력을 갖기 어렵다. 그 결과 양극화도 잡히지 않고, 생산력도 높아지기 힘들다.

정합성이 약하면 정책의 실행력이 약해지고, 사회가 안정되지 않으면 문화(禮樂)가 잘 발달하기 힘들고, 도덕이 떨어져 사람들이 법망(法網)을 피하기에 급급하게 되고, 대중들이 삶의 지표를 잃고 방황하게 된다.

지금 요청되는 것은 종래의 관점들을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철학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모순 되게 작용한 요소들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위한 길에서 서로를 살리는 동반자라는 관점이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종합철학인 것이다. 이를 위한 길에서 민주화와 물질적 생산력 등 객관적 조건은 많이 변하였는데 과거의 고정관념들이 가장 큰 장애로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자의 나라 중국의 현대사를 보면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 같은 걸출한 공자의 제자들(?)이 나름대로 시대의 '정명'을 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는 '한 나라의 정명'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되었다. 세계의 남과 북, 동과 서가 교차하며 대국도 소국도 아닌 이 땅, 세계의 역사가 응축되어 장강(長江)으로 흐르고 있는 한반도에서 인류보편의 '위대한 정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해진다.

아마 요즘 시대정신을 표현하는 말로 가장 많이 듣는 용어가 '선진화'인데, 역설적으로 이 용어는 이른바 지금까지의 관점에서 보면 보수 진영이라고 할만한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고, 이른바 진보 진영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다.

'선진화의 내용'이나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불신 때문이겠지만, 원래의 말 그대로 '지금의 상태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先進)'은 오히려 보수보다는 진보에 더 어울리는 말이다.

나는 이 시대는 단절보다는 '업그레이드'가 요구되는 시기이며, 그런 점에서 '선진화'가 이해되고, 그 업그레이드의 방향은 '인간화'라고 생각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화는 자연에 대한 인간중심적 사고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신(物神)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으로 되는 것',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동물적 진화법칙을 넘어서는 인간계(人間界)의 질서를 만들어 가는 것', '그렇게 해서 자연과 인간의 진정한 조화를 이루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의미의 인간화는 사실 석가, 예수, 공자와 같은 모든 성현의 꿈이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마르크스와 같은 사람들에게조차 '로망'이기도 했던 것이다.

다만 그것이 실제로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위한 사회적 물질적인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인간, 사회, 자연의 상태에 대한 통찰력의 부족(이 점은 마르크스와 같은 사람들에게 특히 보이고 있는데 그의 인간화의 로망이 '투쟁과 혁명'을 필수적 과정이라고 본 것은 오히려 '이기적 시장(市場)'을 진보의 과정으로 본 아담 스미스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이나 인간의 의식이 아직 '자기중심성'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20세기까지 인류가 걸어 온 족적을 보면 --- 비록 나라와 대륙에 따라 편차가 심하지만, 적어도 그 앞선 부분에서는 --- 지금까지는 일부 성현과 선구자의 꿈에 불과했던 그 '인간화의 로망'을 실현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들을 상당한 수준까지 보편화하였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도 이제 상당히 앞선 부분에 속하는 위치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시간을 다룰수록, 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해결의 실마리가 안보일수록 그 실천과 사고의 바탕이 되는 이른바 '정명(正名)'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나에게는 그 것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행복 조건으로 되고 있는 제도, 물질, 의식의 세 가지 면에서 변화된 현실과 인간 의식의 상태에 바탕을 두고 정합성 있는 '종합철학'이 세워지고, 국가(정치), 시장, 시민사회의 세 영역에서 실천과 운동이 각각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상호 연관되는 그런 비전으로 다가온다.

이를 위해 평소 생각해 오던 것을 말씀드려 보려고 한다.

1. 제도---국가

사람들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필요조건으로 되는 것은 '서로 침범하지 않도록 일정한 선(線)을 정해서 그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대는 '개인의 해방'이 가장 주된 목표로 되는 시대이다.

신분제, 가부장제, 전제(專制), 신권(神權), 봉건적 착취와 같은 전근대적 침범이나 독재와 같은 국가권력에 의한 침범, 집단(예컨대 민족, 국가, 계급 등) 전체가 다른 집단으로부터 받는 침범을 반대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근대화의 가장 큰 과제로 되었다.

또한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자본주의가 보편화되면서 실질적 부자유와 실질적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실질적 침범'을 막기 위한 제도적 법적 장치들이 발전하게 되는데, 이 과정 전반을 우리는 '민주화'라고 부르는 것이다.

나라나 민족이나 종교에 대한 다른 집단의 침범을 막는 것을 '자주'라고 하여 한 나라 안의 '자유'와 구분해야 했던 오랜 시기를 경험했고 지금도 그것이 가장 큰 문제로 되는 지역들(예컨대 중동)이 있지만, 앞으로는 '자유'와 '자주'는 세계 민주화라는 큰 흐름 속에 점점 더 통일적으로 인식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신생독립국 가운데는 드물게 짧은 기간에 상당한 수준의 민주화를 달성했다.

그러다보니까 숙성되지 못한 것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후퇴할 수 없는 고지(高地)에 올라선 것도 사실이다.

요즈음 10년 만에 보수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심지어는 위기라고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과거로의 회귀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지금 문제로 되는 것은 그 정치문화의 천박성(淺薄性)이라고 생각한다.

후퇴하지 않고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다음 몇 가지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첫째는 이미 달성한 '실질적 자유 평등'의 수준을 뒤로 돌리지 말라는 것이다.

지금의 정부는 지난 10년간 노동자의 권리가 지나치게 신장되어 기업가의 '이익(의욕)'이 침범되고 있고, 평등이 지나쳐 신장(伸張)하려는 사람을 억제하는 악평등으로 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는 듯하다.

물론 입장이 다르다보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것과 이미 도달한 민주화의 성과를 훼손하는 것을 혼동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

노동삼권을 비롯한 사회적 기본권은 우리 민주화의 고귀한 자산이다. 어디까지나 이 자산의 바탕 위에서 보수적인 정책을 취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보수정권이 그토록 원하는 선진국가를 향하게 할 것이다.

뭔가 '버릇을 고쳐 놓겠다'는 유혹에 빠져 '독'을 깨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진국이란 사회적 약자가 시혜(施惠)의 대상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헌법과 국가에 의해서 보장되는 사회적 기본권을 지닌 당당한 주체로 서는 나라인 것이다.

둘째는 이미 도달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뒤로 돌리지 말라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역사는 침범 당하는 사람이나 집단이 그 침범에 대항하여 싸움으로서 사회를 진보시켜온 과정이었다.

강자가 스스로 자각하여 양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투쟁과 희생의 과정을 경과하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온 것이다.

우리의 민주화도 4.19, 5.18과 같은 큰 분수령과 함께 잘 알려지지 않고 잊혀진 무수히 많은 귀한 투쟁과 희생을 통해 진전되어 온 것이다.

이 과정들은 실정법을 준수하는 과정이 아니라 실정법을 변혁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평화적 정권교체에 성공하였다.

자유로운 선거와 평화적인 투표행위에 의한 정권교체는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도달한 높은 봉우리이다.

이제 이 봉우리에서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기억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침범이 있는 한 싸움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이 싸움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고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법치(法治)는 정부가 반대자들을 순치하기 위한 도구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진보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강력한 무기로 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는 물론 현실적인 억울함이 있고, 법 집행의 경우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폐습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와 규범을 바꾸는 것은 결국 국민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선거에 의해서 보다 나은 정권을 선택하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절차적 민주주의에 따르다보니 발생하는 억울함은 결국 국민의 사랑과 동정을 받게 되고 구체적으로 국민의 투표행위로 보상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특히 이른바 진보진영에 있어서 전략적 결단이 필요한 것인데, 분노와 증오에 휘둘리지 않고 싸울 수 있는 의식(意識)의 전환이 바탕이 될 때 진실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국민의 지지를 얻어 정권을 인수하는 꿈을 현실성 있게 바라보게 될 것이다.

셋째는 민주주의에서 정치권력은 쟁탈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바탕 위에 진정으로 소통하고 상생하는 정치문화가 자라야한다.

침범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정치권력이 사실상 가장 강력한 침범자였던 오랜 시기 동안 정치는 바로 승자 독식의 권력 쟁탈의 장(場)이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제도와 규범이 바뀌어도 정치의 장에 모인 사람이나 집단의 의식 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어서 이것이 민주주의와는 어울리지 않는 천박한 정치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제도와 규범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그러나 그 의식(意識)과 문화(文化)는 아직 그에 못 미치고 있다.

부패.비리.정치공작.정치보복 등이 지금도 빈번한 뉴스로 되고 있는 현실이 그것을 보여준다.

사실 정치권력을 가져보야 '자기 몫을 더 챙기기 위해 남을 침범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때, 비로소 '정치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예술'로 될 것이다.

아마도 늦게 변하는 것은 '정치문화'일 것이다. 이것은 정치인은 물론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급속하게 선진 제도와 규범을 받아들이다 보니 이런 '문화지체'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요즘 여야간에 '상생의 정치'나 '대화와 타협'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직은 서로에게 요구하는 수준일 때가 많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서로 다른 정책과 비전을 놓고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대립하는 것이 당연할지 모르지만, 그 정치행위나 정치문화의 기초가 '정파.계급.지역의 이익'을 넘어서 '나

라.국민.세계.인류의 이익'으로 나아가야 진실한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누가 옳은가?'하고 서로 마주보는 '쟁론문화'로부터 '이 시점에서 무엇이 최선인가?'하고 같은 방향에서 대화.소통.구명(究明)하는 '연찬문화'로 스스로부터 변해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조화의 예술로서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는 국민의 '눈'이 더 밝아지는 것이 가장 큰 배경으로 될 것이다.

넷째는 국가가 공정한 조정자가 되고, 정치가 조화의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돈'과 '이익'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정치제도와 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막대한 선거자금이 필요하고, 결국 이러한 '돈'을 대는 '이익단체'에 의해 선거가 좌우되는 제도와 문화에서는 '서로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공정한 조정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가 배워 온 미국 민주주의는 세계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데 지금까지 나름대로 역할을 해 온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점에서는 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인 것이다.

'온고지신'의 태도로 이런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 속에서 새로운 정치제도와 문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제도(국가)의 역할과 관련하여 이야기하였지만, 아무리 국가가 제도와 규범으로서 침범을 억제하려고 해도 침범이 나타날 조건이 있고, 침범하려는 의식(意識)이 있는 한 침범을 막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엄격하게 법과 제도로 침범을 못하게 한다고 해도, 서로 '침범'하지 못하게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는 사회는 결코 우리가 그리는 이상 사회는 아닌 것이다.

이웃 간에 사소한 일에도 소송이 끊이지 않는 그런 선진국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아닌 것이다.

제도와 규범으로 '침범'을 막는 것은 행복을 위한 '필요조건'에 불과한 것이다.

2. 물질---시장

필요한 물자를 둘러싸고 서로 다투는 필요가 없을 만큼 물질이 풍부해진다면 약육강식이나 적자생존의 동물적 질서 대신에 보다 진화된 인간계의 질서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또한 인류의 오래된 꿈의 하나이다.

탐욕도, 대립투쟁도, 전쟁도 사라지게 될 것이며, 희소성의 원리에 바탕을 둔 경제학은 한 날 고문서로 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할 것인가?

물질과 관련된 삶이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물질이 풍부해진다고 해서 대립 투쟁이나 전쟁이 사라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진정한 평화를 위한 조건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수요를 넘어서는 생산에 대한 오래된 꿈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생산력과 이윤동기에 바탕을 둔 자유시장경제에 의해 이미 1970년대 후반에 전 지구인구 범위의 총량면에서는 달성되었다.

이것은 대단한 것이다! '자기 몫을 더 챙기고 독점하려는' 투쟁과 대립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물질적 기초가 철저히 이기심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루어진 것

이다. 이것이야말로 대단한 역설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이러한 인류사적인 큰 변화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진보의 낙관적 전망으로 되지도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나타난 폐단이 너무 크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인간 중심의 생산력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지구환경을 악화시켜 인류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재앙으로 이어지리라는 것과 극심한 불평등, 국제적·국내적 양극화가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폐단을 극복하고 물질에 대한 인간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이기심을 동기로 하는 시장 대신에 국가나 협동기업이 생산의 주체가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은 이미 보편적인 범위에서는 그 생산력의 낙후성 때문에 실패하였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것은 시장의 결함을 자원배분이나 소득재분배를 통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다. 보통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진보적인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정부개입의 확대는 사실 근본적인 진보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지금의 실태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 활용해야 하겠지만 근원적인 면에서는 시장 그 자체가 인간화되는 과정이 진보의 본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익과 경쟁을 통해 생산력이 향상되는데 그 이익과 경쟁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이 모순, 자본주의의 폐단에 반대하면서도 동기가 다른 사회시스템 안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이 모순, 자본 중심의 고도성장에는 반대하지만 저생산과 저소비를 보편적인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모순들을 해결하는 과정이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위해 물질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절대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이 근본 과제였던 과거와 달리 우리는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질적 기초는 마련하였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런 새로운 시도를 '**시장의 인간화**'라고 부르고 싶고, 이에 대해 평소 생각하던 것을 몇 가지 이야기해 보고 싶다.

첫째 사람의 행복을 중심에 놓는 기업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닌가, 다분히 감상적인 관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나로서는 단순한 낙관이 아니고 사람과 역사에 대한 나름대로의 통찰로부터 나오는 신념이다.

물질이 풍부해져도 이기적 탐욕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다는 말도 있지만, 그것은 부족(不足)한 시대를 오랫동안 거치며 어쩌면 유전 인자에까지 각인되었을지 모르는 관념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일 뿐, 일률적으로 말 할 수는 없지만 물질이 풍부해지면 물질에 대한 욕구는 줄어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온 인간 특유의 '자유욕구(궁극적으로는 佛性和 통한다)'와 '지적능력'이 더욱 신장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기업가들이 기업을 하는 목표를 인간의 행복 증진이라는 방향으로 눈을 돌리게 될

것이다.

실제로 사업도 잘하고 종업원들의 행복도(幸福度)도 높게 하는 기업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다. 또 년 몇 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의 경우에도 그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개인 소유의 의미가 변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자연스럽게 '보다 인간화된 기업' '사회적 책임을 즐겁게 감수하는 기업'으로 진화하는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될 것이다..

둘째 자본에 대해서 노동자의 이익을 실현하는 전통적인 사업과 함께 노동자 상호간의 협동과 연대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가는 노동조합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 동안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데 우리 노동자들이 바친 노력과 희생은 우리 사회를 진보시키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물론 지금도 불가피하게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이지만, 투쟁에서 성과를 얻는 것 못지않게 노동자 상호 간에 '이익과 경쟁'이 아닌 새로운 문화를 뿌리내리는 일이야말로 노동운동이나 노동조합의 도덕성과 진보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특히 대기업노동조합과 중소기업 노동조합, 비정규직 노동조합 등 노동자 내부의 차이들을 넘어서서 연대와 협동을 발전시키는 것은 '시장의 인간화'에 선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협동에 의한 생산력이 '경쟁'을 위주로 하는 일반 기업의 생산력보다 떨어지지 않는 새로운 기업의 성공적인 모델이 나와야 한다.

요즘 인간적인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 가운데 '느리게 살기'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 '빨리 빨리'로 대변되는 경쟁에 내몰리는 산업 사회의 비인간적이고 비주체적 삶으로부터 주체적인 인간의 삶을 바라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좋은 목표라는 생각이 든다.

다만 실제로 주위를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이 '느리게'가 '게으르게'와 혼동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의 수요를 떨어트려서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은 보편적인 방안이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력 향상'을 꾀하고, 그것이 자유시장에서 경쟁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고 또 실제로 그런 면이 있어서 경쟁을 일방적으로 반대하고 비판할 수만 없는 것이 실정이다.

자본주의를 넘어서 보려는 크고 작은 시도들이 이 '생산력'의 덫에 걸려 좌초하고 만다.

'경쟁'을 넘어서는 자리가 무엇일까? '협동'이라는 말이 떠오르지만 추상적인 가치로서는 별 의미가 없고 협동이 잘 이루어져 생산력을 떨어트리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게으름이나 저생산(低生産)으로 연결되는 것이어서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나 자신의 경험에 의하면 '경쟁'을 넘어서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가 하고 싶어서 자신의 최고를 발현하는 것'인데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적당한 말이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마침 논어를 읽다가 '충(忠)'이라는 단어가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충(忠)'은 집중이다. 흔히 어떤 일에 고도로 집중되는 상태를 삼매경(三昧境)에 든다고 하는데 그런 상태가 충(忠)이다.

경쟁에 의해서 발현되는 능력은 쥐어짜내어지는 것이며, 그 마음의 상태는 긴장(緊張)으로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 일시적으로 경쟁에서 승리한 기쁨을 맛보더라도 그것은 순간에 불과한 것이다.

‘충(忠)’은 집중이며 자신의 최고를 발현하지만 그 마음의 상태는 ‘자신을 잊을 정도(忘我)’의 편안함이다.

보통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일반적 기업이나 사업에서 이런 상태를 경험한다는 것은 여러 조건상 어렵다.

만일 어떤 새로운 기업(예컨대 생산협동조합)에서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서 ‘충(忠)’을 즐기면서 높은 생산성을 발현한다면 그것은 진실로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

나는 앞으로 일반의 선구적 기업 가운데도 이런 진실하고 행복과 직결되는 ‘동기(動機)’가 생산성을 높여 가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지금 잘 발전하고 있는 ‘생활협동조합’이 좋은 생산을 하는 ‘생산협동체’나 ‘좋은 기업’과 연계하여 그 영역을 넓혀 가는 것만큼 시장의 인간화도 탄탄한 기반을 갖게 될 것이다.

넷째 ‘단순소박한 삶’---뿌리로부터의 혁명

물질적 궁핍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풍요를 경험하고 나면 보다 높은 ‘삶의 질’과 보다 영속적인 ‘행복’을 찾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고 본다.

카지노식 금융자본주의의 속성 상 ‘이기적 탐욕’이 시장을 왜곡하고 비인간화(인간의 품격을 떨어트리는데)하는 것을 막기 어려운 현실에서, ‘소비와 생활문화의 혁명’이야말로 뿌리로부터 시장을 인간화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것이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단순소박한 삶’이다.

‘단순소박한 삶’에 대해서도 한가지로 말할 수 없는 다양함이 있다. 단지 형태로서의 소박한 삶이라든지 물질적 욕구를 참아야하는 내핍생활이라기보다는 욕구의 질이 바뀌어서 자연스럽게 물질적 욕구가 감소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실한 ‘단순소박’이라고 생각한다.

‘자발적 가난’이라는 말을 비슷한 의미로도 사용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자발적 풍요’라고 부르고 싶다.

인간의 자유욕구는 물질적 욕구로부터 점차 정신적·예술적 욕구로 상향 진화한다고 생각한다. 탐욕과 침범을 부끄러워하게 되고, ‘비교·경쟁·시기·질투’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단순함’이다.

이 단순함에서 나오는 삶이 ‘단순소박한 삶’인 것이다.

나는 농촌뿐만 아니라 대도시의 아파트 단지에서도 이런 삶의 혁명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삶의 혁명이 확산되는 것이야말로 아마도 시장을 인간화하는데 가장 큰 동력으로 될 것이다.

다섯째 풀어놓음으로서 풍성함을 실현해 간다.

불교의 방생(放生)이 가장 좋은 예가 될 것 같다. 풀어 놓아(放) 살리는(生) 것이다. 물질과 능력, 마음이 갇혀 있으면 살려지지 않는다.

자원봉사.기부를 비롯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회에 회향(回向)하는 것이다.

집집마다 옷장에는 잘 안 입는 옷들이 그득하다. 비단 옷 뿐이겠는가? 그것을 풀어놓아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하면 그 수많은 물건들이 살려지는 것이다. 갇혀 있는 것은 물질만 아니다. 그것을 소유하고 가두고 집착하는 마음도 해방하는 것이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오병이어(五餅二魚;떡 다섯조각과 물고기 두 마리)로 수천명이 풍성한 식사를 하였다는 것의 기적도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종교인이 많은 것, 특히 4대 종교가 기본적으로 불교와 기독교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적어도 백만 명만 자신의 신앙을 제대로 실천한다면 이 나라가 '새로운 문명'의 모델 국가로 되는데 종교가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요즘 도농(都農) 간의 직거래가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내가 사는 마을에서도 야채꾸러미를 회원제로 도시 주민에게 공급하고 연회비를 받는 형태의 교류가 있는데, 물자와 돈이 오가는 외관(外觀)은 있지만 서로 주고받는 마음은 '선물의 교환'으로 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다.

'서로 가진 것을 풀어 놓는 방식'의 거래인 셈이다.

부를 많이 축적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준 사회에 환원한다든지,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선진국이 후진국에 양보하는 것 등이 모두 풀어놓는 일이다.

이상 생각나는 몇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만큼 시장은 인간화될 것이며 물질적 풍요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의 조건으로 될 것이다.

3. 의식---시민

요즘 우리 현실을 보노라면 가끔 '천국과 지옥의 우화(寓話)'가 생각난다.

진수성찬이며, 긴 젓가락이며 천국과 지옥이 조건은 같은데, 한 쪽은 아비규환이고 한 쪽은 화기에애하다는 것이다.

지옥은 그 긴 젓가락으로 자기가 먹으려고 하니까 아비규환이고, 천국은 상대를 서로 먹여 주니까 화기에애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밥상도 이제 많이 풍성해졌다.

그 밥상 위에 '자유. 평등. 복지 1인당 GNP 2만불 . G20 . 인권 . 법치 .핸드폰 .인터넷 등' 이 반세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진수성찬으로 차려져 있다.

그런데도 '자유도(自由度)'나 '행복도(幸福度)'는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마저 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하면 결국 젓가락의 사용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이 젓가락의 방향을 돌리는 것, 즉 의식혁명(意識革命)이야말로 행복의 충분조건을 만족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의식혁명은 이미 성인(聖人)들이 그 모범을 보인 것이다.

의식(意識)을 지닌 인간이 출현하는 것이 우주진화의 역사에 하나의 비약이라면, 이 의식이 동물계 일반의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무아집'의 완전한 자유에 도달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을 완성하는 것이다.

성인들과는 달리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이 '자유'의 길이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그것이 인

간의 역사라고 생각된다.

인간의식의 특징인 '자유욕구'와 '지적능력'이 우선 집중되는 것은 자연적 제약과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른바 과학기술혁명이나 사회혁명을 통해 이 방면에서는 엄청나게 앞으로 나아가 상당한 물질적 자유와 사회적 자유를 획득하였다.

그런데 의식은 동물 일반의 자기중심성에서 그다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그 갭으로부터 나타나는 '부자유'와 '불행감', 이것이 현대가 당면하고 있는 핵심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장소, 거리, 시간,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는 핸드폰과 인터넷 등 소통수단의 발달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지만, 정작 '마음의 소통'은 어떤 상태인가를 보면 이 모순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가공할 핵에너지(행위능력)를 손에 든 덜 성숙한 아이(자기중심적 의식)의 모습이 현대의 위기를 상징한다.

이제 엄청난 '행위능력'과 그다지 변하지 않은 '자기중심적 의식' 사이의 모순은 인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되었다.(생태 환경 기후의 위기뿐만 아니라 극단적 양극화나 대량실업 등 사회문제에 있어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은 '행위능력'을 뒤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

원불교의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구호는 그 정곡을 찌르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의식의 문제는 국가나 시장(市場)이 주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자발적 자유의지에 따른 자각운동이기 때문이다. 종교와도 관련이 깊겠지만, 나는 이 의식과 생활을 변혁하는 운동을 시민운동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하는 것이 시대정신에 부합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방향에서 시민 사회 내지는 시민운동에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해 보고 싶다.

첫째 우선 내부의 소통문화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다.

지금 시대의 화두처럼 들리는 말이 '소통(疏通)'이다. 가정에서부터, 국가, 세계에 이르기까지 이 소통이 가장 큰 테마로 다가오는 것이다.

'소통을 잘 하고 싶다'라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어떻게 해야 소통을 잘 할 수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잘 듣고' '잘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잘 듣고 잘 말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

어떤 마음을 준비하고 연습해 갈 것인가?

자기의 마음을 비춰보고 그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거울 같은 것은 없을까?

아마도 모든 성인의 마음이나 말씀이 이 거울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요즘 나에게는 공자(孔子)가 '소통의 달인'으로 다가올 때가 많다.

그래서 스스로의 마음의 상태를 비춰보는 거울로 공자의 절사(絶四;네 가지 끊음)를 소개하고 싶다.

첫째는 무의(毋意)다.

‘혹시 내 뜻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마음에 결박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둘째는 무필(毋必)이다.

‘혹시 무엇인가를 꼭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묶고 있지는 않은가?’

셋째는 무고(毋固)다.

‘혹시 어떤 것이 옳다고 미리 단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넷째는 무아(毋我)다.

‘혹시 그것이 우월감이건 열등감이건 상하관념이건 <내로다!>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나 자신도 이상의 네 가지를 늘 거울처럼 떠올려보려고 노력하지만, 부족한 사람이란 걸 자각하고 자괴감으로 괴로울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내부에서 우선 동료나 이웃끼리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이런 방향의 노력을 함께 하는 곳에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다.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진정한 소통을 연습하여 ‘서로 양보하고 싶어지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야말로 자기중심성을 넘어서는 진정한 자기혁명의 과정이며 ‘마음의 자유’에 도달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지금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더 좋고 밝은 사회 만들기’를 하는 것이다.

시민운동이 그 동안 정치나 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시민을 대변해서 견제 . 감시 . 비판하는 활동’들을 많이 해 왔고 그것이 민주화에 큰 기여를 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그런 활동이 필요한 곳도 있고, 또 서로 유기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분리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시민운동의 영역으로 해 오던 많은 일 가운데 상당 부분은 정치(국가)나 시장에 돌리고 이제는 ‘시민이 함께하는 좋은 사회 만들기’를 그 운동의 큰 줄기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먹물이 번진 물을 깨끗이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맑은 물을 계속 붓는 것이다. 맑은 물을 붓는다는 것은 ‘서로 양보하는 사회적 공기(空氣)’를 만들어 가고 싶은 사람들이 먼저 그렇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이런 방식의 ‘좋은 사회 만들기’가 시민운동의 중요한 영역의 하나로 자리 잡아 가기를 바란다.

요즘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마을 만들기’의 좋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전북 익산의 ‘희망연대’와 같은 시민단체가 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인간화’ ‘시민이 주체가 되는 시민운동’ ‘민관이 함께 하는 사회창안’ 같은 새로운 시민운동의 모델이 나오는 것은 이런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사례들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우리의 의식과 삶의 방식을 뿌리에서부터 변화시키는 문화운동(르네상스)을 즐겁게 만 들어가는 ‘작은 결사’들이 들불처럼 번지기를 바란다.

얼마 전 익산의 한 도서관에서 시민들이 ‘논어강독’을 하는데 나도 참여한 일이 있었는데,

저녁 시간에 어머니 아버지들이 고전을 옆에 끼고 모여 함께 인생과 사회를 이야기하는 모습에 감동을 했었다. 이런 모임들이 많아지면 '아무리 제도를 바꿔도 이루어지기 힘든 교육 혁명'이 학부모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광주와 인천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작은 모임들, 사랑방 모임들이 번져 새로운 르네상스 운동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을 기념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보면서 느꼈던 생각이 떠오른다.

<30의 나이에 자신의 생명을 바쳐 이루고 싶었던 꿈이 무엇이였을까?

12인의 단지(斷指) 결사에 모인 당시 청년들의 충정들, 그 신성한 결의들도!

자주적인 나라에서 백성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꿈, 이를 바탕으로 동양 3국이 함께 이루어가는 평화로운 세상!

이런 염원이 안중근 의사를 하얼빈 역두의 칼바람 속에 세웠을 것이다.

세상은 많이 변했다.

이제,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고귀한 선열들이 이 땅에 뿌린 새 세상을 위한 귀한 씨앗을 움터서 자라게 할 결사가 그리워진다.

이 결사는 단지(斷指)도 폭약도 희생도 규율도 의무도 필요 없는 것인데....

오직 '자기혁명'이 '세계혁명'으로 되는 이치를 자각하고, 그것을 실천하기만 하는 되는 것인데...

이런 결사가 전국 도처에, 세계 도처에 넘치는 정경을 그려볼 수는 없는 것일까!!!

이제 다시는 우리의 꽃다운 청년들이 거친 광야의 칼바람 속에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상으로 우리 시대의 정명(正名)에 대한 평소의 생각을 말씀드렸다.

나는 사회제도.물질.의식이 서로를 상승시키는 진정한 조화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익과 경쟁 . 대립과 투쟁을 넘어서는 상생의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아직은 아집이 있는 서로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시스템(제도)과 물질적 준비를 통해 의식(意識)의 미흡함을 보완해가고, 이런 실천의 과정을 통해 인류의 보편적 의식(意識)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며, 이러한 의식의 업그레이드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후손 만대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국가 . 시장 . 시민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선진화'와 '인간화'를 진지하게 모색하고 실천하고 있는 분들께 이 글이 다소라도 참고가 될 수 있다면 다행으로 생각한다.